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복음기도신문

Gospel Prayer Newspaper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십자가 사랑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성도들을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프리카 민주화 바람 ... 선거 통한 대통령제 도입 잇따라

아랍세계 민주화 시위 영향, 일부 국가 50여년만에 선거로 대통령 재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일 2:16-17)

아프리카에서 민주화 열풍으로 선거를 통한 대통령 제도가 도입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간 이코노미스트지(誌)가 최근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아프리카에서 스와질랜드가 유일하게 왕정체제로 왕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나라로 남아 있고 다른 대부분의 나라는 선거를 통한 대통령 선출제도를 도입했다. 물론 아프리카의 모든 대통령들이 서구의 대통령들처럼 정해진 임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기니에서는 2010년 51년 만에 대통령 선거를 처음 실시하여 콩드 대통령이 재선됐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면적과 인구가 큰 나라로서 유일하게 대통령과 의회에 의한 통치를 받지 않는 나라이다. 에티오피아는 제나위 총리의 독재 치하 아래 오랫동안 신음하여 왔다. 리비아의 지도자 카다피는 이제 몰락했다.

모리타니아는 지도자 아델 아지즈 장군이 군복을 벗었지만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군부 독재를 이끌고 있다. 알제리도 군인들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다.

르완다의 카가메 대통령은 2010년 93%의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되었고, 서구의 국가들은 그가 남긴 개발 업적으로 인해 그의 재선을 반겼다. 하지만 그는 더욱 억압적인 지도자가 되었다. 르완다에서 야당과 언론인들은 협박을 당하고 있으며, 성직자들은 감옥에 갇혔고, 반대자들은 탄압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고 있다.

아랍 세계의 반정부 시위 바람이 남쪽으로 불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았던 아랍 세계의 민주화 바람이 아프리카 국가들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조용했던 아프리카의 몇몇 국가들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에서의 시위는 아랍 국가들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비교적 경제가 튼튼하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보츠와나에서 2011년 초 처음으로 공공 기관에서 파업 시위가 발생했고 학생들과 시민 단체들이 지지 시위를 벌였다. 2011년 7월에는 조용했던 말라위에서 시위가 일어나 20명의 시위



대들이 보안군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민들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앙골라의 독재자 산토스와 그의 당은 1975년 앙골라가 독립한 이래 집권하고 있다. 앙골라에서도 시위가 일어났지만 규모가 작았고 금세 사그라졌다.

지난 2011년 9월 23일 20년 동안 잠비아를 통치했던 반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지도자 사타에게 진 후, 선거 결과는 잠비아 국민들의 뜻이며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잠비아는 아프리카에서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잠비아에서 야당 인사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며, 사법부는 독립되어 있고, 공무원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다. 이는 아프리카에서 흔치 않은 경우이다.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교육을 받은 아프리카의 중산층들은 잠비아와 같은 상황이 자국에서도 일어나기를 요구하고 있다(출처: 한국선교연구원=종합).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

라" (디모데전서 2:1-2)

공의와 평강의 주재이신 사랑하는 아버지, 아프리카 땅에 민주화 바람이 불기 시작함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처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독재, 군부통치로 왕 노릇하는 아프리카 권력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 지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될 때 진정한 영광과 만족이 있음을 아프리카 땅에 선포합니다. 왕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주님께 손을 드는 아프리카 교회들을 더욱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반드시 지나가 버리는 세상과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라' 는 말씀을 이 땅에 성취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 땅에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기도24:365제공]

INSIDE



▶ 기획 4면

"복음과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두 기둥"



▶ 인터뷰 5면

"말씀에 순종하며 부르신 선교지로 떠납니다"

- 진성운 전도사

▶ 관련기사 3면



김용의 선교사 컬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흥해는 장애가 아닙니다”

자유란 얽매어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바를 향하여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렇다고 원하는 바를 한다고 해서 자아의 총만한 욕심대로 다 하는 것도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종입니다. 방종은 잠시 자유를 만끽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방종은 결국 자신을 얽매는 타락으로 빠지게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영혼까지 만족하게 합니다. 영혼까지 영원히 만족하게 하는 진정한 가치를 향하여 내 삶을 주저 없이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자유입니다. 진리 안에서 허락된 자유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원합니다.

완강하게 물러서지 않던 바로의 당당한 세력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9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자, 유월절 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양을 잡으라.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으라.” 그들은 도대체 이 행위가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저 바로의 권세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그날 밤. 놀랍게도 유월절 어린양의 피가 바로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당당하게 애굽을 나가게 했습니다.

2천 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힘없이 죽은 로마 사형수의

피.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인류를 끔찍한 지옥의 권세와 죄의 사슬에서 인류를 구해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리를 마음껏 누리며 달려갈 수 있는 완벽한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흥해바다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난리를 쳤습니다. 유월절 밤에 그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 될 텐데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만나서 진리의 길에 들어서고 나면 모든 것이 변해 있고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바다로 나가라고 하셨으니, 풍랑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풍랑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분명 있습니다. 이전에는 나 혼자 풍랑을 맞았지만 이제는 주님과 함께 풍랑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세상은 새로운 곳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살았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전과 전혀 다른 것은 이전에는 그 세상에서 뭐하나 얻어 먹을까 눈치 살피며 살았지만, 이제는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다고 낙심하여 털썩 주저앉지 말고, 주님만 믿고 당당하게 거침없이 순종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에게 흥해는 결단코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참 자유는 아들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유월절 어린양 피로 성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주님의 절대주권을 믿으며, 늘 진리가 결론이 되는 선택을 하도록 매일 말씀을 구하고,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면 성령을 쫓아서 무조건 내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거칠 것 없는 대로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메시지 정리

<순회선교단 대표>

+ 생명의떡

‘내 진짜 생명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야!’

루마니아 /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마 5:11**

“한번은 서커스 구경을 하다가 매우 인상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감방에 함께 있던 한 형제가 말했다.
 “궁수 한 사람이 양초 십자에 불을 붙여 자기 아내의 머리 위에 올려놓더니 저쪽으로 갔습니다. 제가 보기도 꽤나 먼 거리였는데 화살을 쏘아 여자의 머리 위에 있던 초를 정확히 맞추더군요. 공연이 끝난 뒤에 그녀에게 가서 무섭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남편이 자기를 겨냥한 게 아니라 초를 겨냥한 것인데 무서워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다.
 “고문을 두려워할 까닭이 무엇이지? 그건 내 육신을 겨냥한 것이니 나를 겨냥한 게 아니야. 나의 진짜 생명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야! 나는 그 분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어. 따라서 그들은 진짜 나를 건드리지 못해. 이런 놀라운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들의 노력은 결국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범브란트 목사는 믿음으로 인해 14년의 옥고를 치르는 동안 죽음의 문턱에 술하게 다가갔지만, 이 단순한 교훈에 힘을 얻어 영적으로 더욱 강건할 수 있었다. 육신이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신의 자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박해는 아무리 혹독한 것이라도 한계가 있다. 신체적 고통도 정신적 충격도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을 파괴하지 못한다. 우리가 안에 지니고 있는 것. 곧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부분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靈)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정신적 신체적 해(害)로부터 보호해주시나.
 물론 핍박하는 자들이 우리를 때리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짓으로 얻는 것이라고 해야 고작 우리 안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하는 정도 뿐이다. 그들은 우리의 육신을 해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참 생명, 곧 우리 안에 살아 계신 그분을 결코 해하지 못한다. 그분은 결코 죽지 않으신다! 압제의 칼이 아무리 날카롭고 우리의 목을 노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큰 그림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싸움은 본질적으로 선(善)과 악(惡)의 전면전에 관계되어 있다.

(출처:주를 위해 죽다(2010), 규장각)

복음기도 포토 에세이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눈을 들라”

- 인도 델리 빈민가의 아이들

몇 년 전 인도 델리 빈민가를 찾아가 의약품을 나눌 때 동네 어린이들이 찾아와 너도 나도 손을 내밀었다. 구걸을 하는 것이다. 돈을 달라며 조르는 아이들의 눈에 사진기를 갖다 대었다. 금새 자기만의 독특한 포즈를 취한다. 하하, 헤헤, 호호, 까르르 그치지 않는 웃음소리. 그리고 해맑은 눈동자에 천진난만한 얼굴. 이들이 눈을 들어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실망시키지 않으실 아버지를 만나게 되길 소망한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 7:11)

- 사진 제공 : 오후경 선교사



윤동권 선교사
(문화행동 아트리)

“디베라 바닷가에 선 제자들처럼 자신 없지만…,
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장로님이신 아버지와 권사님이신 어머니 밑에서, 운명적으로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모태신자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엄격하신 아버지로부터 가정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예의 바르다’란 말은 저 때문에 생긴 줄 알고 자랄 정도로 걸보기에는 신실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저에 대한 칭찬은 끊이지 않았고 교회 어른들이나 성도들 어느 한 사람도 제가 목사 외에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학 입학 때는 평소 관심도 없던 기계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주님의 부르심이 아닌 그저 어릴 때부터 익숙한 단어였을 뿐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도 신앙생활은 당연했습니다. 더구나 교회 드라마팀을 이끌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연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전하기에 아주 유용한 도구로 받아들이며 제대할 무렵,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문화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마음을 굳힌 것입니다.

다들 말만 한 유명한 배우가 되어 나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뮤지컬 학원에 등록하고 6개월의 훈련 후에 ‘문화행동 아트리’에서 공연하는 ‘루카스’라는 작품에 배우로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3년간 크리스천 배우로서 열심히 공연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아프리카로 단기선교도 다녀오고, 대형교회에서 하는 많은 행사들의 사회도 도맡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배우’가 되기 위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9년 8월 주님께서 저를 총체적인 복음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창세전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어마어마한 복음을 한 증인을 통하여 듣게 되었고, 총체적인 복음 앞에 제 자아가 온통 침몰하는 시간을 맞았습니다. 제가 존재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를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다고 여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저는 죄를 빼놓고는, 아니 죄와 분리해서는 설명할 수 없는 ‘죄가 곧 나’고 ‘내가 곧 죄’된 존재였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자가 아니라 나 자체가 어두움이었고 어두움이 곧 나였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음란함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흥미로운 것이었습니다. 부모님 방에 있는 TV를 훑쳐보며 심야시간에 방송되는 자극적인 드라마와 영화들을 통해 음란함을 키워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시작된 자위행위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교체했던 자매와 처음 관계를 가졌을 때도, 저는 전형적인 모태 신앙출신답게 죄의 열매를 두려워하며 관계를 갖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자매가 이미 죄의 열매가 있는, 하와와 같이 이미 선악과를 범한 존재인 것을 알고는 부담 없이 죄의 열매를 맺은 아담과 같은 자,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자였습니다.

기도는 10분도 하기 힘들어 하면서도 정욕을 채워주는 음란물을 찾아 인터넷 사이트들을 뒤질 때는 밤이 새도 피곤치도 곤비치도 아니한 자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중에도 저는 철저하게 저를 포장하고 가린 채로 교회에서 여전히 신실하고 예의 바른 모범적인 학생을 연기하며 살았습니다. 뮤지컬 배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여러 공연을 하면서도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 저의 영광을 찾아다니던 자였습니다. 이런 나의 죄 된 실체를 보게 되니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저의 모든 죄와 저의 병든 자아가 2천 여 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제 안에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순간에 누구에게라도 이 복음을 나눌 것을 결단했고 또 그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이 나누어 질 때마다 생명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또한 매순간 십자가를 경림케 하셨습니다. 저는 몇 년전 복음을 전혀 모른 채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지금의 제 아내가 된 자매를 따라 인천 신도에 위치한 열방기도센터에 들어갔습니다. 밥 먹고 기도 하고, 자고, 기도하고 밥 먹고를 반복한 일주일의 삶. ‘뭐 이런 곳이 다 있나, 이 사람들은 대체 뭐지? 그리고 난 왜 여기 있지?’라는 고민을 할 틈도 정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싸움을 일주일 만에 마치고 새벽 6시부터 한 시간씩 기도하는 24.365 기도자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새벽마다 걸려오는 기도 도우미의 전화 알람. 짜증을 꺾고 참아내며 6시에 일어나서 전화통화를 한 번 하고 다시 잠자리에 드는 번거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6시에 기도한 날은 손에 짬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그 이후 기도시간을 새벽 1시로 옮겼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루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마침 새벽 1시 정도가 되어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데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우미 기도자로 섬기게 되자 맡겨주신 5명의 기도자들을 실종하고 말았습니다. 수도 없이 기도의 자리를 피하던 저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셨던 하나님의 열심이 저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하루 하루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 수도 없이 저를 부인하고 몸을 쳐야 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다시금 결단하게 하고 그러나 또 넘어지고 결단하고 넘어지고 결단하고를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제자들을 다시 찾아 오신 것처럼 저에게도 찾아 오셨습니다. 양을 다섯 마리나 잡아먹은 놈에게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난 여전히 자신이 없지만 나로서는 안 된다는 걸 알기에,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에 이제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십자가만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계속 나갈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께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 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마라나타!!

선교통신

현지 선교사와 사역 위해 중보기도를 요청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단체등록 ...
학교 사역 폐쇄

선교현장에서 선교사역 포기
와 종교법 이행요구는 드문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같은 기도편지를 접할 때마다 관계자들의 마음을 간절하게 한다. 최근 두 건의 아픈 소식이 본지 편집진 손에 쥐어졌다. 중보기도자들의 기도를 요청한다. <편집자>



> 학교사역 폐쇄 = L국에서 사역하던 L선교사는 이달 초 이 지역 주지사로부터 학교운영을 하면서 종교활동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수년 동안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학교 사역을 폐쇄하라는 집행명령 통지서를 받았다. 이로 인해 학교에 다니던 수백여명의 아이들은 타학교로 옮겨야 하고, 현재 학교는 현지인에게 권한을 이양하거나 정부에 학교를 기증해 정부에서 임명하는 교육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를 운영하게 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L선교사는 기도편지를 통해 “아무 기반도 없이 시작했지만 수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 눈물과 간구의 힘이였다”며 먼저 감사의 고백을 나눴다. 이어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용기는 밑바닥으로부터 올라오지만 조용히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며 빠른 시간내에 학교가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했다.

> 새 종교법...종교단체 등록 요구 = K국에서 사역중인 K선교사는 새 종교법이 기존에 등록된 종교 단체들까지 모두에게 등록을 받도록 요구받았다. 등록을 위해서는 50명 이상의 사인이 필요한 상황. 대부분의 공동체가 재등록해야 하는데 대부분 작은 공동체들이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모으고 있다고 소식을 전했다. 또 등록된 주소 외에 모임을 하는 것을 금지. 재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에 길을 열어주시도록, 또한 이 종교법으로 인해 지체들이 두려움을 갖지 않고 담대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아뢰어 달라고 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1면에 이어 - 아프리카는 어떤 곳인가?

Africa



면적 3천24만4천km²
인구 10억3천304만
도시화 40%
종족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인 67.1%, 아랍인 19.5%, 아프리카의 뿔 10%, 말레이족 1.9%, 백인 0.8%, 남아시아인 0.6%, 기타 0.1%
종교 기독교 48.8%, 이슬람교 41.5%, 종족종교 8.3%, 무종교 1%, 힌두교 0.2%, 바하이교 0.2%, 기타 0.02%

<출처: Operation World 2010>

아프리카를 주목하라

<p>아프리카 인구의 77.9%는 니그로 종족이며,</p>	<p>아랍계는 거의 대부분이 북아프리카에 거주한다.</p>
<p>아프리카의 문제는 부정부패를 일삼는 지도자들의 문제가 가장 크다.</p>	<p>아프리카의 땅에 평화의 노래가 퍼지도록 기도하자.</p>

<출처:만화 열방기도정보, 넥서스CROSS>

기획 - 복음기도신학포럼 지상중계

“복음과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두 기둥”

신구약을 통해 본 복음과 기도의 성경적 근거



복음과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해 주님이 허락하신 열쇠가 될 수 있을까. 순회선교단 부설 복음기도신학연구소(소장 유영기 목사) 창립 첫 복음기도신학포럼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견고한 두 기둥으로 복음과 기도’를 주제로 지난 15일 천보산민족기도원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구약성경에 나타난 기도를 중심으로’란 주제로 김명호 교수(고대근동언어성지문화연구소 소장)가, 세례의 관점에서 본 복음의 성경신학적

이해에 대해 유영기 교수(전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가 각각 주제논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응답자로는 이종환 목사(영산교회 담임)와 이동주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신학)가 구약부분을, 정용비 목사(전주순주교회 담임)와 송준인 목사(청광교회 담임, 총신대 석좌교수)가 참여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주제 논문 요약문이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생명으로 사는 총체적 복음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라 ... 의의 병기로 드리라

유영기 교수(복음기도신학연구소 소장)

복음의 성경적 이해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가 세례이다. 복음을 처음으로 선포한 세례 요한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례를 행했으며, 예수님 역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세례받으심으로부터 시작하셨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음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복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인간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다.'

십자가 사건 이후 복음을 총체적으로 다룬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죽음을 통과하여 의롭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동참하게 되고 의의 병기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야 한다고 말했다. 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는 총체적인 복음이 될 수 있다.

이 복음은 그러나 시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변치 않고 절대적이고 영원하다. 과거나 현재에도, 빈한 자나 부한 자에게도, 남녀 누구에게도, 인종의 구분 없이 누구에게도 필요한 절대적인 복음이다. 이러한 영원한 복음을 몇 가지 주제별로 살펴본다.

◇ **예수님의 공생애와 복음** =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리고 광야의 시험을 거치셨다. 첫 사람 아담은 실패했으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통하여 실패를 경험했으나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승리 하였고, 만나와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은 실패했으나 예수님은 40일 금식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아들로서 마귀를 이기셨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일련의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심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님과 죄인들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은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 된 자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이 임하심을 보여준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은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실 십자가 죽음의 시험에서 승리할 분임을 미리 입증하는 사건이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기초한 구원 역사 사

건이다.

◇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세례** =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세례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과 연합하여 죄인들의 대표자가 되어 그들의 죄를 대신하는 죽으시기 때문이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의 삯을 지불하는 죽으시기이며 죄인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는 사건은 분명 복음이다. 바울은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으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함으로써 복음의 기원과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고 밝혔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표현으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즉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복음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의 요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연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복음이 온전해진다.

◇ **율법과 복음** = 율법과 복음을 대조적인 것으로 보거나 반대적 개념으로 보는 것은 성경을 균형 있게 보지 못하는 것이다. 또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제 율법 시대는 지나갔고 복음 시대, 혹은 은혜 시대가 도래했다"는 생각도 바른 성경적 관점은 아니다. 물론 율법과 복음은 불연속성도 있고 연속성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복음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이다. 율법의 행위로 의에 이르지 못하지만 율법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사는 일에 규범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세례에 관한 바울의 이해** =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야 할 것이라고 바울은 말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하여 죽은 자들이며, 장사 지낸 바 된 사람이다. 그리고 세례는 또한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서 걸어가는 자들이다. 이것이 진정한 세례의 의미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는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죄의 몸을 멸하는 것이며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는 것이다. 죄의 종 노릇

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넘어지는 행위

주님의 날이 응답으로 영광 가운데 임할 것

김명호 교수(고대근동언어문화성지연구소 소장)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복음과 기도의 두 기둥'은 순회선교단이 결론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삼고 있는 주제이다. 복음이 믿음을 통해 실체가 되게 하는 기도영역을 히브리 본문을 근거로 고찰했다.

전통적으로 기도는 간구하는 것,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구약성경에 사용된 기도에 대한 원문(히브리 단어)의 단어와 문맥에 대한 의미를 살펴볼 때 기도는 이런 의미를 넘어서 그 이상의 뜻을 담고 있다.

먼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히트파엘(기도하다)이라는 단어는 '기도하다'는 뜻의 '트필라'라는 명사에서 파생된 용어이다. 시35:13에 따르면, 기도를 하는 사람의 그 행위의 결과가 기도하는 자신에게 돌아온다. 또 기도는 온 힘(전심)을 써야 한다. 그러므로 가벼운 기도란 있을 수 없다. 이 연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한다는 히브리 단어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패역한 존재여서 기도를 잘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구약성경에는 이밖에도 '기도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다양한 단어가 있는데, 이 논문은 그중 3개의 용어를 중심으로 기도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다.

첫째로 '엎드리자' '넘어지다' '떨어지다' 라는 뜻을 가진 '나팔'이라는 용어다. 시91:7의 엎드리자(이폴)의 어원은 나팔(엎드린다)이다. 구약성경은 또 엎드린다는 의미를 갖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들의 반응임을 알 수 있다(겔1:28).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믿음으로 넘어지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넘어진 곳에서 자신의 원함을 거룩한 불로 100%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이다(민 16:4, 신 9:25f). 오늘날 성도는 긍휼이 크신 여호와와 손에 함께 넘어져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죽어도 여호와와 손에 넘어져, 죽더라도 생명이 있는 그 자리,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십자가의 자리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도 주전 8세기에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며 '세상으로, 사람의 손으로 넘어져서는 안되며, 말씀으로 넘어져야 한다고 외쳤다.

둘째 '기도하다의 히브리 어원 피엘의 원래 의미는 '끼어들다' '개입하다'라는 뜻이다. 이처럼 기도란 자신이 나름대로 고민하고 생각한 것을 정리해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재하는 것이다. 시 106:30의 비느하스의 중재하다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피엘이다. 이를 새번역으로 '심판을 집행하니'이며 공동번역으로 '법으로 다스리자'라고 번역되고 있다. 다시 말해 기도의 자리는 심판의 자리이다. 이처럼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그 분 앞에 나아가는 자리이다. 실제로 구약에서 이같은 피엘이라는 단어는 소돔 멸망에 대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창 18:22-32), 아말렉 전쟁에 대한 모세의 중보기도(출 17:8-16), 블레셋 전쟁에 대한 사무엘의 중보기도(삼상 7:5-9)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셋째 '간구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타르가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구한 그대로 들어주시는 기도의 의미라는 뜻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아타르 동사는 현대에 와서 기도하다라는 의미 대신, 법정용어로 간구하다 간청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도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에서만 특별한 간청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창 25:21에 아내의 잉태를 위한 이삭의 간절한 간구를 들어주시는 기도를 가리킬 때 바로 '아타르'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도는 단순히 구한다는 기본 의미를 넘어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믿음의 행동이요 순종을 뜻한다. 그리고 그 넘어진 곳에서 자신의 원함을 거룩한 불로 100% 소멸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뤄지는 축복의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의 온전한 뜻을 좇아 간청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해 부분적으로가 아닌, 통째로 응답하신다.

을 그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 성도들도 여전히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과 범죄함이 있을 수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는 것이다. 둘째, 죄로 죽은 몸이 왕 노릇하게 하지 말고 자신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자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자신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죄가 믿는 자를 주관하지 못한다고 바울은 결론을 내렸다.

삶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코너 **나눔&나눔**

“말씀에 순종하며 부르신 선교지로 떠납니다”

- 주님만 따라가는 진성운 전도사

최근 N국에 비전트립을 다녀온 후 부르심을 확증 받고 1년 일정으로 선교지로 떠나는 진성운 전도사님을 만났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평생의 부르심으로 마음을 정하고 떠나는 그를 보며 마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믿고 따른 아브라함을 떠올렸다. 상황과 환경에 구애 받지 않고 단순히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외치며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는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진성운 전도사는 아내 김경란 사모와 슬하에 평화, 열방, 하늘 2남 1녀의 가족과 함께 지난 10월말 출국, 현장 선교사로서 새 삶을 시작했다.

- 얼마 전 비전트립을 다녀오신 지역으로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짧은 시간이지만 단기팀으로 선교지에 다녀온 후 현지 선교사님들 안에 복음과 기도로 사역이 변화되는 일을 보게 되었어요. 단기팀으로 선교지에 나가 섬기는 것도 중요한데 만약 이 복음이 실제라면 그곳에서도 복음으로 살아낼 증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었어요. 제가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갔을 뿐이에요.”

- 부르심을 어떻게 확증 받게 되셨나요?
“아내가 호남 복음선교관학교 2기, 제가 3기 때 N국을 다녀왔어요. 한 지역을 그렇게 아내와 남편이 차례대로 다녀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곳으로 비전트립 지역을 정한 것도 아니어서 더욱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여지게 됐어요. 특히 그곳에서 만난 선교사님과 이후 계속 연락이 되어서 친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최근 잠시 귀국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1년간 안식년으로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며 현지에 있는 센터를 관리하고 중보기도로 섬길 대상으로 우리 가정을 떠올렸다는 말씀을 들었죠. 그저 지나가는 말처럼 건네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괜찮겠다’ 정도만 생각 했어요. 제가 올해로 신대원 마지막 학기였기에 졸업을 하고 가면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주님께 확증을 받고 싶어 우리가 간다고 먼저 말하지 말고 선교사님이 먼저 풀링을 하시면 반응을 하자고 아내와 이야기했죠. 그래서 기도 하고 있었는데, 선교사님으로부터 메일이 왔어요. 그곳에 있을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요. 싱글이나 가정이든 누구든 괜찮다고요. 그래서 집중해서 기도하며 마음을 정하게 되었죠.”

- 선교지로 떠나기로 결정하신 후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마음은 정했는데 일정이 안 맞았어요. 선교사님이 안식년으로 국내에 들어오실 날이 오히려 앞당겨지면서 마음의 결단이 필요했어요. 학교 졸업을 하려면 출국 일자를 늦춰야 하는데 선교사님은 오히려 한 주 더 빨리 와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곤란한 상황으로 여기다, 주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게 되었어요. 주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타고 들어갈 나귀를 제자들에게 가져 오라고 하실 때 ‘너희가 가면 나귀와 나귀새끼가 있을 것이니 주인이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던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지금 너와 너의 가정이 즉시 응답할 때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주님은 제 마음에 물으셨어요. 졸업장 없어도 나 하나면 충분하냐고.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것으로 충분하냐고 물으셨어요. 그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비록 9년을 넘게 다닌 신학교였지만, 이 상태에서 접기로 결단 했어요. 이후 학교측에서 예상 밖으로 배려해주시겠다는 연결도 있었으나, 알 수 없죠. 졸업장이 있든 없든 주님이 저의 순종을 받아주셔서 기쁨뿐이에요. 그렇게 출국날짜를 정하고 순차적인 과정을 통해 주님이 정말 신실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복음과 기도로 그 지역을 품게 될 것도 더욱 기대하게 되었어요.”

- 기간을 정하고 떠나시는 건가요?
“그 나라 수도에서 50분쯤 떨어진 지역인데 일단은 현장 선교사님이 안식년으로 한국에 1년 쯤 머무르실 계획이라서 저희도 1년을 약속하고 떠나요. 그런데 사실 우리 마음은 1년이라고 보다는 주님 부르신 자리라면 주님 오실 날까지 그 자리에서 서 있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그래서 아내와 한국에 있는 물건들은 잘 것 다 주고 팔 것 다 팔고 남기지 말자며 짐과 짐들을 다 정리하고 있어요.”

- 장기적으로 머물 생각이라면 준비할 일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준비할 것은 거의 없어요(웃음). 엇그제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우리 뭔가 준비는 안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더군요. 아내는 계속 순회기도팀 다녀오고 느헤미야52일 기도 ‘복음의 영광’으로 24시간 기도를 파수하고, 출발 전에는 복음학교 섬김이까지. 저도 특별한 일 없이 짐 싸고 이사 준비하며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 후원교회나 후원자는 정하셨나요?
“물론 후원자나 후원교회를 두어야만 할 것 같은데 어쩌면 제게 그것이 마음의 안정감을 두게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일단은 자비량으로 나가기로 결정했어요.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주님이 하실 것만 신뢰하며 주변 분들을 만나면 다만 어떻게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또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나눌 뿐이에요. 일부러 후원자를 만들지 않아도 주님이 마음 주셔서 후원 할 분들을 세우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세우시겠죠. 주님만 신뢰할 뿐이에요. 요즘 드는 생각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어디든 따라가는 단순한 순종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다만, 국내 선교자원은행 역할을 하는 요셉의창고미니스트리라는 단체와 협력하기로 했어요.”

- 요셉의 창고를 통해 어떤 협력을 하게 되시나요?
“요셉의 창고에 대해서는 훈련학교를 통해 조금씩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국내 뿐 아니라 해외까지 연합하고, 복음과 기도로 충분한 증인들을 통해 선교지를 섬기고 현지 선교사님들과 협력하며 하나님나라를 세우는 통로로 세워지는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선교는 나 하나만 잘 서서 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구하는 동역이 필요함을 깨달았죠.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과 동역하며 또 그들을 위한 통로로 섬기게 될 일을 기대해요. 그래서 요셉의 창고 미니스트리의 협력 선교사로서 계속 동역하게 될 것 같아요.”

- 마지막으로 기도제목을 말씀해주세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가 복음으로 온전히 서지 않으면 모든 성도가 지옥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목회할 때 저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요. N국에서도 이단들이 들어오고 교회가 (이단에)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생명으로 전한 복음이라면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이 생명으로 만나야 할 복음인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복음을 살아내고 분명한 진리를 전달할 증인이 그곳에 필요해요. 어떤 열매를 바라다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현지 성도들이 일어나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손해를 봐도 쫓겨나도 무시당해도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겠지요. 선교사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실제 되는 것을 기대해요. 무엇보다 말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선교사가 아니라 정말 말한 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부탁 드려요. 주변에 걱정들이 많으세요. 물론 어려움도 당하게 되겠죠. 재정, 건강, 교육문제 등.. 그렇지만 주님을 의뢰하기로 결정했어요. 자녀들도 저로서는 안 되더군요. 다만 하나님이 아이들 마음을 만져주셔서 함께 그 땅을 품고 기도하는 다음세대로 일어나게 될 것 바라봐요. 복음과 기도로 충분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마치고 남은 것은 '거친 십자가'였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의 죄수인 나를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 드린다.

느헤미야52기도를 하는 교회를 보면서 부러운 마음과 나도 교회에서 기도자로 서야하는데 라는 부담감을 늘 가지고 있었다. 작년에 중보기도학교를 하며 1일 느헤미야로 24시간 연속기도 프로그램이 있음을 들었다. 그러다 이번에 기도자를 모집하는 것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게 알려주시고 도와주신다는 편안한 초대에 쉬이 이끌려 기도자로 설 것을 결단하게 되었다.

기도일을 앞두고 나는 기도장소의 허락과 기도자 동원 등으로 떨리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지만 주님이 부르고 인도하고 계심을 하나하나 알려주셨다. 기도 몇 시간 전까지 식사와 기도처소 준비로 분주하지만 한 나에게 사람이 아닌 주님만 주목하고 주님 앞에 선 자임을 생각하게 하셨다. 정말 주님은 느헤미야로 서게 된 나로부터의 동원이 아닌 주님의 동원으로 기도자를 부르신고 세우셨

다. 주님은 홀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연합하여 기도하도록 매 시간마다 기도자를 보내주시고 파수하게 하셨다.

'복음의 영광'을 주제로 기도하며 마음에 소원이 있었다. 이미 안다 하여 외치고 지나가지 않고 다시 십자가 복음 앞에 서게 하실 것과 주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는 교제 의 시간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느헤미야로서 기도를 인도해야 한다는 강박증과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싶다는 마음은 주님을 누구보다 사모하고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이 아닌 오직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임을 보게 되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는 내가 얼마나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죄인인지를 보게 해주셨다. 기도의 자리에서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기도할 수 없는 자였다.

많은 기도를 올려드렸지만 기도를 마치고 남게 된 것은 '거친 십자가'였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들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치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벧전 2:6-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고전 1:18)

그 '거친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능력인지, 얼마나 큰 영광인지 보게 하신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되어 썩어질 자기 영광을 구했던 죄덩어리인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되어 십자가에서 죄 값을 치르시고 부활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일이었다. 주님은 나의 기도제목대로 나를 십자가 앞에 다시 세우셨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어서라도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했던 나의 존재를 보고는 더 이상 기도의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았고 설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랑으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좇을 것을 말씀하시며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를 초청하고 계셨다.

나에게 기도는, 생명 존재의 반응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느 순간 또다시 기도가 행위처럼 여겨져 기도 자리는 나에게 죽음의 자리이며 믿음을 써야 하는 자리이다.

이번 느헤미야52기도를 하며 가끔 졸음이 오는 나를 깨우시는 주님께 나의 기도는 이렇게 부족하고 엉터리 같은데 왜 주님 저에게 기도하게 하시냐는 질문을 드렸다. 주님은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필요해, 내가 쉬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다오' 라고 하셨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아내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 14:26-27)

오늘도 주님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고 계신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세우고 계신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서번희사모

따라읽는 말씀기도(27) -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성전 중심의 거룩한 삶"

이 코너는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기도시간에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편집자>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되었으나 그것으로 끝은 아니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성벽재건은 무의미하다. 나라의 경계가 세워진 이후에 관건은 그 경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가 하는 것이다. 성벽재건 이후 학사 에스라를 필두로 성전 중심의 삶으로의 개혁이 일어났다. 그리고 성벽 봉헌식을 통해 성전을 섬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지위가 정비되었다. 그리고 율법을 따라 이스라엘 안에 섞인 무리를 분리하는 '거룩한 일'이 진행되었다.



■ **본문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느 12:45-47)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킨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묘를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느 13:1-3) 그 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 **말씀을 의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 1.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재건 이후에 율법을 따라 거룩한 삶을 결단한 것과 같이 교회들이 거룩한 삶을 갈망하고 믿음의 결단을 계속하도록 기도하자.
- 2. 성전 중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섬길 때에 가능하다. 동일하게 이 땅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다윗과 아삽의 때와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도록 기도하자.

<출처: 기도24·365 제공>

2011년11,12월의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 ◇ 47주차 (11월21일-26일)
 - 나무와씨앗교회 - 느헤미야 김진혁 간사
 - 하모교회 - 느헤미야 김기철 목사
 - 성산감리교회 - 느헤미야 안선의 목사
 - 문광교회 - 느헤미야 최종덕 목사
- ◇ 48주차 (11월28일-12월3일)
 - 예수그리스도의교회 - 느헤미야 이용숙 사모
 - 나무와씨앗교회 - 느헤미야 김진혁 간사
 - 동산의샘교회 - 느헤미야 김시환 목사

'느헤미야52기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느헤미야52팀으로 연락바랍니다.

☎ 070-7417-4366-7, 010-419-24365
*느헤미야는 이 기도모임의 주관자를 의미합니다.

뮤지컬 가스펠, 연일 “초만원” 관객 몰려

- 갈 2:20절, 내가 죽고 예수 사는 십자가의 의미 그려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노(老)사도 요한이 주님의 행적을 떠올리며 복음서를 기록하는 장면으로 뮤지컬 가스펠은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시공간을 초월하며 빠른 템포로 그려나간다.

지난 11일까지 11일 동안 서울 충신감리교회에서 진행된 문화행동 아트리 1.1.1 프로젝트 ‘가스펠’이 전국에서 운집한 개인 및 단체관람의 뜨거운 호응 가운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예수님의 여러 표적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떠나간 제자들을 다시 찾아 오심,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요한이 시간이 흐른 후 무리들에게 붙잡혀 끌려 나가는 장면까지 무려 약 3시간동안 요한복음 전체가 음악과 춤으로 어우러져 공연됐다. 뮤지컬 가스펠에서 예수님 역을 맡은 이승연 문화예술선교사는 “왜 예수님이 일찍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알 것 같다”며 믿음 없는 이 세대를 향해 찾아가 진리를 선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실재 없이 표현하며 소감을 전했다.

약 250석의 자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문을 듣고 찾아온 관중들로 발디딜 틈도 없이 이어졌다.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분을 모시고 온 분들

부터 가족별 교회별로 참석했다. 매년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한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라는 슬로건으로 6번째 헌금제 공연을 진행해 온 김관영 목사는 “지금까지 여러 공연을 기획해 왔지만 이번처럼 공연도 빠먹지 않고 보고 싶었던 적은 없었다. 이번 뮤지컬을 보며 복음을 더 분명히 드러내시는 주님의 열심을 본다”며 감격과 은혜를 전했다.

이번 가스펠 공연의 백미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일 것이다.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형벌을 받으신 십자가의 비밀을 전혀 새로운 각도로 표현해 냈다. 관중들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예수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 십자가를 자랑하는 증인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게 된 존재임을 보게 된다.

가스펠은 공식 공연을 마친 다음날 12일 ‘다음세대 다시복음앞에 서다’에서 특별공연을 통해 청소년들의 마음을 두드렸다.

“다시복음앞에 연합집회 한달 앞으로”



인터넷으로 접수해야 참석 가능해

다시복음앞에 연합집회가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 7개지역 순회집회, 뮤지컬 가스펠, 다음세대 다시복음앞에 집회, 복음기도신학포럼 등 각종 모임과 집회가 계속 이어진 가운데 12월 13일 오후 2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드디어 한 자리에 모이게 된다.

지난 달 31일 1차 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약 1천 7백여명이 접수가 완료됐고, 이달 중순까지 2차 접수가 이어진다. 신청방법은 네이버 주소창에 ‘다시복음앞에’를 치면 바로 홈페이지(www.gospelprayer.net)로 찾아갈 수 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집회등록하기’를 클릭 후 약관 동의, 등록, 집회 기간 동안 모든 집회에 참여할 것 등에 관한 몇 가지 동의 등을 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등록을 하는 분들에 한해 3박4일간 식사가 제공된다. 헌금제로 운영되는 집회는 13일(화) 오후 2시부터 등록 데스크를 통해 등록함으로써 시작되며 당일 밤 10시에 하루 프로그램이 끝난다. 다음날 14일(수)부터 16일(금)까지는 새벽 6시에 시작, 밤 10시까지 진행된다.

부득이하게 인터넷 참가신청이 어려운 분을 위해서는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복음기도동맹 본부전화 070-7447-0301, 010-9440-4365). 숙박시설은 서울·경기 지역 외 지방 분대에 한하며 차량은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인근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강사진에 관한 프로필, 프로그램, 새로운 홍보영상 등이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다.

“복음기도동맹 페이스북 개설”

복음기도신문도 페이지 및 온라인신문 가동



복음기도동맹은 최근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는 사용자들을 위해 페이스북 복음기도동맹 공식 페이지(http://www.facebook.com/gospelprayeralliance)를 개설했다.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삶을 격려하고 소식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이 공간은

최근 일련의 다시복음앞에 집회소식과 12월에 열리게 되는 '다시복음앞에'(Return To The Gospel) 집회홍보 등을 계기로 사용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복음기도동맹 사무국 김인애 선교사는 먼저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한 취지에 대해서 "사이버 공간이 디지털 정보 오남용과 역기능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이곳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선교사는 또 "아직 미비하지만 우선 페이스북 공간을 통해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을 일으키고 함께 모이게 될 이번 '다시복음앞에' 집회를 알리는 데에 목적을 두고, 관련 뉴스와 콘텐츠들을 게재함으로써 관심자 및 참여자들에게 생동감 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집회가 끝난 이후에도 이 페이스북을 시작으로 복음을 드러내고 알리는 선한 통로로 사용되기를 바라고, 다양한 복음과 기도의 콘텐츠들이 개발되고, 사이버 선교사들이 배출되어 진리의 선포들이 사이버 공간 안에서 외쳐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음기도신문도 최근 동일한 취지로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와 인터넷 신문 사이트(gnpnews.tistory.com)를 개설 본격 가동중이다.

느헤미야52 기도 기도정보집 「복음의 영광」 출간

기도24365본부에서 기획하고 복음과기도미디어에서 제작, 발간하는 이 책자는 ‘복음의 영광은 당신에게 실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매시간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도정보집이다.

총192쪽 | 복음과기도미디어 | 값6,000원
 구입문의 ☎ 070-7417-0408~9 20,000원 이상 주문시 배송료 무료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메시지

김용의 선교사 설교 CD, DVD, 테이프 제작, 보급

복음과기도미디어는 김용의 선교사의 각종 메시지를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복음기도모임의 메시지와 2007년의 JUMP부산 집회, 은혜한인교회 집회 등이 있습니다. CD는 각 4,000원, 테이프는 각 2,000원입니다. 2만원 이상 주문시 배송료 무료.

문의 및 주문: 010-6326-4641, 070-7417-0408~9
 gnmedia@gnmedia.org
 [입금계좌 : 국민은행 651002-01-121175 김송이]

뷰즈 인 시네마
Views in Cinema



매일 기억을 잊어버리는 루시처럼 첫사랑의 구원의 감격을 잊고사는가?

『원제: 50번의 첫 만남(50 First Dates)』

한 여자가 있다. 1년 전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사고 전날까지의 기억만 하는 그래서 자고 나면 새로운 기억은 잊어버리는 그녀의 이름은 루시(드류 베리모어扮).

한 남자가 있다. 대학 때 사랑에 빠진당 하고 더 이상 사랑을 받지 않는, 이 여자 저 여자 유혹하며 가볍게 여자를 만나는 동물원 수의사 헨리(아담 샌들러扮). 이 정도 소개만으로 이후 어떤 내용이 전개 될지 쉽게 감이 오는 전형적인 할리우드 로맨틱 코미디 영화인 '50번의 첫 만남'이 오늘 소개할 영화이다. 12세 이상 관람가로 되어 있는 이 영화는 그러나 가족 전체가 함께 보기에는 적당하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 영화를 그저 그런 할리우드 영화로 넘겨버리기엔 뭔가 특별함이 있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다. 바람둥이 헨리는 일요일 아침 식사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 루시를 보고 한 눈에 반한다. 평소 하던 대로 자연스럽게 루시에게 접근하는 헨리. 그리고 그의 친근함에 호의를 보이며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하는 루시. 그리고 다음날도 같이 밥을 먹기로 하고 식당을 찾아 루시에게 말을 걸지만 보기 좋게 치한으로 몰리고 만다. 영문도 모르는 헨리에게 식당주인은 루시의 사정을 말하며 다신 그녀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사실 사고 이후 그녀의 아버지와 오빠는 그녀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사실을 숨기고 1년 동안이나 사고 다음 날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었다. 사고 전날이 아버지의 생일이었기에 잠에서 깨어난 다음날은 늘 아버지의 생일로 위장해야 하고 신문도 작년 일요일 신문으로 수백장을 복사해 놓고, 루시가 그린 그림도 사고 전날처럼 다시 하얀 벽으로 되돌려 놓는 등

일 똑같은 삶을 유지하려 노력한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헨리는 그 때부터 그녀가 지나다니는 길에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계획하고 그녀와 추억을 쌓는다.

그러던 중 그녀의 가족들의 방법이 그녀를 더 힘들게 한다고 생각한 헨리는 그녀의 가족을 설득하여 그녀가 현실을 받아들여도도록 그녀에게 매일 비디오를 찍어 보여주기로 한다. 처음 비디오를 볼 때는 자신의 사고에 충격을 받지만 이내 자신을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런 헨리의 노력 덕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매일 새롭게 사랑에 빠지는 두 사람. 사고 후 루시에게 문제가 생길까봐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도 다시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러다 자신을 위해 헨리가 그동안 꿈꿔온 자신의 꿈을 포기했다는 말을 루시가 듣게 되고 헨리를 아빠와 오빠처럼 살지 않게 하기 위해 헤어지기로 결심하는 루시. 헨리는 여전히 루시를 사랑하지만 그 마음을 바꿀 수 없어 떠나고 만다. 떠나는 보트 위에서 지나간 추억을 떠올리다 그녀가 무의식 중에 자신을 기억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헨리는 루시를 찾아가고 자신과 같은 환자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던 루시는 헨리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자신이 그린 수많은 그림의 헨리를 보고 그를 알아보고 그와 행복한 키스를 나누는 다.

이어지는 마지막 장면. 여전히 루시는 아침이 되어 전날의 기억을 떠올리지 못하고 눈앞에 놓인 비디오 테이프를 본다. 거기에는 그동안 헨리와 자신의 모든 추억이 담겨져 있고 루시는 놀라며 바라본다. 그리고 배 밖으로 나가자 헨리와 아빠, 그리고 그녀를 닮은 딸이 그녀를 맞이

한다.
영화의 대부분의 내용을 말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이 영화는 알고 봐도 감동적이다. 복음 앞에 선 이후 이 영화를 다시 봤을 때 이 영화는 누가 뭐래도 주님과 나의 이야기였다. 기억을 잃어버린 루시. 그런 루시를 위해 자신의 삶과 꿈을 포기하며 그녀에게 매일 사랑을 고백하는 헨리. 그리고 점점 헨리를 기억하는 루시. 아침마다 비디오를 봐야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지만 상관없다. 그런 그녀를 포기하지 않는 헨리가 있다면 말이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루시의 모습과 닮지 않았는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상황에 있던 자였는지 깨닫고 그런 나를 위해 주님이 어떤 댓가를 지불하셨는지 알게 되고 그런 나를 살리신 구원의 감격으로 기쁨을 누리지만 또 옛사람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마치 루시처럼 또 그분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희생을 잊고 다른 것들로 만족하려는 우리의 모습.

하지만 그런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 자신을 희생하여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복음 앞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면 우린 결코 망할 수 없다. 너무 작위적으로 해석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직접 영화를 보시라. 어느새 루시의 모습 속에 자신과 그런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한 헨리를 닮은 주님, 아니 주님을 닮은 헨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처음 주님을 만날 그때처럼 오늘도 여전히, 하지만 처음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감격할 것이다. 한국에서 이 영화는 '50번째 첫 키스'라는, 상업성을 고려

한듯한 약간은 생경스런 제목으로 소개됐다.

(코미디, 로맨스/멜로 | 미국 | 피터 시걸 | 99분 | 12세관람가 | 2004)

박요섭 기자

■ 후원자 명단

(2011년 10월 27일 ~ 11월 9일. 가나다 순)

△개인

김학희 민용기 박태일 배용구 백인나 유자인 윤석주 이민자 이설옥A 이영미 지병용

△교회 및 단체

국제선교교회 기쁜우리교회 서울제일교회 성도교회

*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배포하며 함께 보실 것을 권합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희망구독부수와 주소를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해주세요. 구독료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제작과 배포에 헌금으로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17454 예금주:김송이(복음기도신문)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문의

☎ 070-7417-0408~10

E-mail : gnpnews@gnmedia.org

(400-800) 인천시 중구 향동7가 1-44

요셉의 창고 2F 복음기도신문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서안목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인천.다06036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일시 2011년 12월 13일(화) - 16일(금)

장소 선한목자교회(경기도 성남시 복정동)

강사 권영조 선교사(사이판복음교회), 김성로 목사(춘천한마음교회),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 류응렬 교수(충신신학대학원), 박보영 목사(인천방주교회), 박영철 교수(침례신학대학원), 백부장 선교사(○국), 송신호 목사(한국제자훈련원), 송천호 목사(미국 월드비전), 안정규 선교사(케나),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유병국 선교사(WEC국제선교동원본부), 유영기 교수(복음기도신학연구소), 이동희 목사(바울선교회), 정재현 집사(천마USA)가나다순
※ 예배'리턴'(return), 뮤지컬'가스펠'(Gospel), 그 외 복음과 기도의 증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호세아6:1)

‘다시 복음 앞에’

RETURN to the GOSPEL
오직 복음으로

[문의] 복음기도동맹 사무국

070-7447-0301, 070-7417-0815, 010-9440-4365,

010-4167-0301, 010-4167-0374 / E-mail: gpall@paran.com

website: www.gospelpayer.net (웹사이트에서 참가자 선착순 접수중)

[주최·주관] 복음기도동맹

[후원] 갓피플, 기도24365, 리턴, 문화행동아트, 복음기도신문, 복음기도신학연구소, 선한목자교회, 순회선교단, 요셉의창고미니스트리, 천보산민족기도원, 충신감리교회, T&R미션, WEC 국제선교회 가나다순

*복음기도동맹이 주최하는 이 행사는 헌금으로 운영됩니다 후원계좌: 651001-01-319982 국민은행, 조완순(복음기도동맹)